

# 산업·축산 폐수로 전국의 강 '몸살'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재성 19



폐수로 오염된 죽음의 강을 되살리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사진은 낙동강.

##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공유치원에 다니는 지훈이는 길을 가다가도 스님을 만나면 멈춰서서 합장을 하고 "스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정겹게 인사를 한다. 얼마 박해원성보살은 그런 지훈이가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반드시 합장인사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착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도 흐뭇하긴 했다.

실이다. 그만큼 유년기에 받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불교유치원조차 쉽사리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자리한 사찰사우에 견주어 볼 때 전국 8천여개 유치원 가운데 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유치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2백여개에 불과하다.

금주의 주제  
유치원 세우기

### 강물의 오염

부처님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셨다.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요소(五蘊: 色受想行識)는 주위의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멀리 그리고 빨리 흐르는 계곡물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강물과 같은 것이다."

무명과 번뇌에 오염되어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의 흐름에 귀착되듯이, 강물도 공해에 오염되면 죽음의 흐름에 귀착된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사회가 시작된 나라이니만큼 환경오염의 역사 또한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영국의 산업혁명은 런던을 흐르는 테임즈강의 기적이었다. 테임즈강 유역에는 1800년대 초부터 철강, 석탄, 방직 공업 등이 번창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영향으로 테임즈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1838년에는 이미 영국인이 즐겨먹은 테임즈강의 연어가 사라졌

고, 그후 100여년간, 죽어가는 강을 살리려는 노력은 제국주의적 산업정책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2차대전 이후 런던시민이 5백만에서 8백만으로 늘어나자 테임즈강은 더욱 오염되어 1957년 테임즈강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전국 3천9백여개의 하천은 대부분 상류부터 오염되어 있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강, 섬진강을 보태어, 휴전선의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염되어 있다. 하천의 상류는 대부분 물고기의 양식장이거나 곳곳에 들어박힌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장에서 방출되는 항생제와 약품이 섞여있는 사료,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시골 구석구석에서 농사지를 때 농약, 비료, 제초제를 사용하고 농공단지에서는 폐수를 마음대로 방출하고 있어 종류의

### '테임즈강은 타산지석' 되살리는 길 찾아야

하천과 강물을 더럽히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지나는 하류에서는 생활하수도 오염되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나같이 오염되어, 금수강산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은 하루 5백만톤의 산업 및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그 상류인 남한강도 상류부터 탄광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되어, 악취나는 원주천으로 오염된 섬강과 합류하여 오래전에 2급수로 떨어진 팔당호에 들어선다. 북한강도

마찬가지로 그 강 종류의 외양호에는 악취나는 춘천 공지천에서 흘러드는 물로 오염이 심해지고 그리고 상류의 소양호에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오염된지 오래다. 비단 한강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맑다는 금강물도 2급수로 전락된지 오래되었고, 낙동강도 발원지부터 탄광폐수로 시작하여 구미전자공단을 거쳐 나오면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이미 제 빛깔을 잃어버리고, 대구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금호강의 물과 합류하

로써 죽어가는 강이 되고 있다. 1960년 영국정부는 테임즈강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서 그후 15년간 무려 25억달러의 경비를 들여 마침내 1974년 테임즈강이 연어가 되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하천과 강을 살리기 위해 테임즈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완전한 죽음의 강이 되기 전에 손을 써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로 금수강산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월정사 8219층석탑 앞에 앉고 있는 석조약왕보살상. 자비의 웃음을 띠고있다.

### 새삼 배우는 3박4일간의 출가생활

오대산 월정사... 불자·일반인도 참가  
가지고 돌아와 이 절과 함께 양산 통도사를 이룩하고 율종(律宗)을 개창한 거승이다. 자장은 선덕여왕 12년에 우선 오대산 비로봉 아래에 석가세존의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창건한 다음, 2년 뒤에 동대만월산 아래에 절을 이룩하고 절안에 8219층사리탑(국보 제48호)을 건립하여 그안에 석존사리 37과를 봉안함으로써 이 절을 창건하게 됐다. 문화재로는 석조약왕보살상(石造藥王菩薩像:보물 제139호)과 '상원사 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가 더 있다. (0374)32-6664~5

###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신심을 고양하며 삶의 지표를 바르게 가지기 위한 '월정사 출가 3박4일'이 8월 5일~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월정사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4년(645)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한 유서깊은 명찰. 이 절을 연 자장은 선덕여왕의 친족인 무림공(武林公)의 제2자로 일찍이 불문에 귀의, 당에 들어가 구법수도(求法修道)하고 귀국할 때 부처님 사리와 장경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 이 절과 함께 양산 통도사를 이룩하고 율종(律宗)을 개창한 거승이다. 자장은 선덕여왕 12년에 우선 오대산 비로봉 아래에 석가세존의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창건한 다음, 2년 뒤에 동대만월산 아래에 절을 이룩하고 절안에 8219층사리탑(국보 제48호)을 건립하여 그안에 석존사리 37과를 봉안함으로써 이 절을 창건하게 됐다. 문화재로는 석조약왕보살상(石造藥王菩薩像:보물 제139호)과 '상원사 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가 더 있다. (0374)32-6664~5

자장은 선덕여왕 12년에 우선 오대산 비로봉 아래에 석가세존의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창건한 다음, 2년 뒤에 동대만월산 아래에 절을 이룩하고 절안에 8219층사리탑(국보 제48호)을 건립하여 그안에 석존사리 37과를 봉안함으로써 이 절을 창건하게 됐다. 문화재로는 석조약왕보살상(石造藥王菩薩像:보물 제139호)과 '상원사 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가 더 있다. (0374)32-6664~5

### 경주는 노천박물관 신라문화원 역사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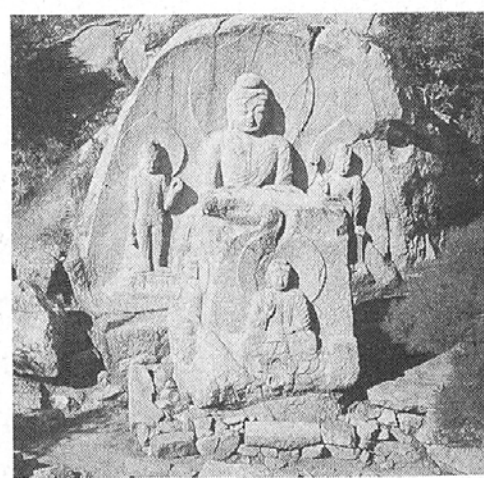
천년고도 경주를 일컬어 달 없는 노천박물관이라 한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을 비롯하여 각종 강좌와 유적답사, 연수회, 전시회, 사회 복지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8월 12, 13일 1박2일로 '제 2회 신라문화 역사탐방'을 마련한다.

홍불사, 굴불사터, 황룡사터 답사를 시작으로 불국사·석굴암탐방에 이어 향토 사학가 윤경렬씨의 설명하에 경주남산 유적 슬라이드상영도 한다. 장엄한 토양산 일출로 시작되는 들레날의 답사는 불국 감실불상, 탑곡 마애불상군 등 경주남산의 볼거리를 일일히 둘러보게 된다. 경주남산의 푸른 골짜기와 감포 동해안의 맑은 바닷기가 주는 신선함속에서 휴가와 방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61)746-1950

시와 낭만을 산사에서 백양사 여름문화학교 여름을 흔히 낭만의 계절이

## 신행수첩



◇신라때 천산에서 부처님이 하강해 머무는 영산으로 추앙되었던 경주 남산. 사진은 보물 200호인 경주 남산 칠불암다액석불.

라고 한다. 아마도 파란 바다를 베개삼아 자연을 벗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시 한수가 어우러진다면 금상첨화. 광주·전남민족문화인협회

수려함속에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과 김형수 시인의 주제강연이 열리고, 산사시낭송, 노래 배우기 등의 즐거운 시간이 한여름 밤을 수놓게 될 것이다.

영취봉, 가인봉, 옥녀봉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연못에서 느껴지는 선계(仙界)속에 열리게 될 '문화토론' 시간도 산사와 문화의 절묘한 만남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를 아끼는 사람, 산사의 깊은 멋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유한다. (062)375-3585

### 국태인안 백고좌법회

조계사 내달 18일부터

1백여명의 법사를 초청, 강론을 듣는 법회장이 마련된다. 포교와 수행의 도량으로서 한국불교의 1번지 역할을 해온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8월 18일부터 1백일간에 걸쳐 백고좌법회를 실시한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원광법사

가 황룡사에서 나라의 재난을 막고 왜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왕반야경'을 강의한데서 시작했다.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 1백여명을 법사로 초청하는 만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자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732-2115

### 감자 캐보고 곤충도 관찰

함평 어린이 여름캠프

요즘엔 방학이라도 잠꾸러기 어린이가 없다고 한다. 자연과 좋은 벗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함평 소재 21세기 사회교육 개발원 수련원에서도 광주불교

교육원 주최로 28일부터 2박3일간 어린이캠프가 마련됐다. 하지만 예전의 마냥 뛰놀고 노래하는 캠프가 아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곤충과 인공기구를 관찰하며 깊은 산과 맑은 물속에서 자연을 호흡한다. 발일도 배우고 달구지도 타보고 손톱에 봉숭아도 물들이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특히 달을 만들어 달총을 추며 별밭 풀밭에 누워 별을 헤는 캠프파이어도 준비돼 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예쁜 선물도 마련돼 있는 이번 캠프에 어린이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참, 수련원엔 모든 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어 집떠난 어려움은 걱정 안 해도 된다. (062)228-9098

# 정 중 신 원

## 고승초청 예수재 49일 기도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가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성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근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재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희 정중신원에서는 이 시대에 크나큰 선지식이신 일곱 분의 스승님을 초청 증명 법사로 모시고 영가 천도법회 및 생전예수재 법단을 마련하여 중생들이 무명 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1. 예수재 : 입재 1995년 8월 14일 월요일  
회향 1995년 10월 3일 월요일

1. 일곱 분 선지식 증명법사님 설법내용
  - 8월 14일 월요일 월 성 큰스님 (본원 선원장) (예수재란 무엇인가. 예수재의 공덕)
  - 8월 21일 월요일 고 산 큰스님 (쌍계사 주지) (기도의 원력 그리고 성취에 대하여)
  - 8월 28일 월요일 천 운 큰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 (기도와 보시정신)
  - 9월 4일 월요일 혜 정 큰스님 (전 총무원장) (이웃을 부처님처럼, 전법의 기수가 되자)
  - 9월 11일 월요일 월 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자)
  - 9월 18일 월요일 밀 운 큰스님 (전 봉은사 주지) (청정도량을 만드는 보살)
  - 9월 25일 월요일 무진장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함께 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 10월 3일 월요일 회 향 식 (불교전통 법패 전수자 스님들의 바리춤, 나비춤, 회심곡 등으로 여법히 회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5층  
대한불교 조계종 정중신원  
TEL 573-8506 / FAX 575-2709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바람